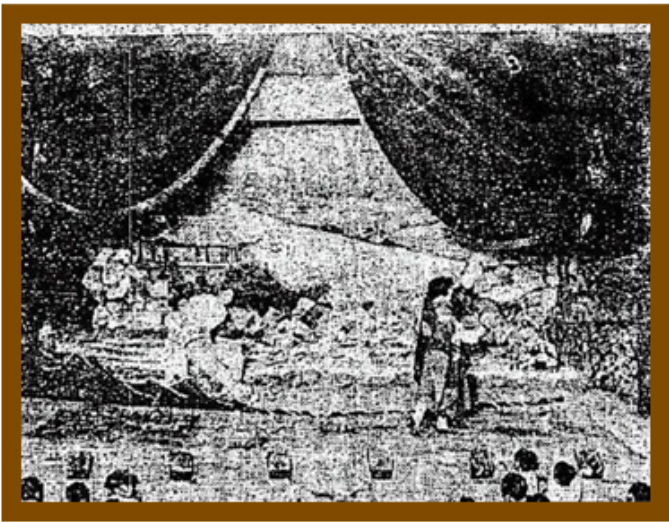


무대미술가 원우전



연극 '이 내 말씀 들어보세요' 무대장치(1925.5.30), 원우전



연극 '조롱에 든 새' 무대장치(1925.6.29), 원우전

원우전(원우(1903~1970))은 인천 출신의 무대미술가이다. 그는 1923년 인천에서 태어나, 1925년 인천에서 활동하던 원우전(원우)과 함께 무대미술을 시작했다. 원우전은 1925년 5월 30일 인천에서 열린 연극 '이 내 말씀 들어보세요'의 무대장치를 맡았다. 이 무대장치는 당시 인천에서 가장 훌륭한 무대장치로 평가받았다. 원우전은 "원우(원우)는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활동했다"고 말했다.

원우전은 1923년 인천에서 태어나, 1925년 인천에서 활동하던 원우전(원우)과 함께 무대미술을 시작했다. 원우전은 1925년 5월 30일 인천에서 열린 연극 '이 내 말씀 들어보세요'의 무대장치를 맡았다. 이 무대장치는 당시 인천에서 가장 훌륭한 무대장치로 평가받았다. 원우전은 "원우(원우)는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활동했다"고 말했다.

원우전은 1923년 인천에서 태어나, 1925년 인천에서 활동하던 원우전(원우)과 함께 무대미술을 시작했다. 원우전은 1925년 5월 30일 인천에서 열린 연극 '이 내 말씀 들어보세요'의 무대장치를 맡았다. 이 무대장치는 당시 인천에서 가장 훌륭한 무대장치로 평가받았다. 원우전은 "원우(원우)는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활동했다"고 말했다.

